

10장. 재판연설: 범죄의 원인

1368b | 계속해서 고발과 변론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것[전제]들과 어떤 종류의 것[전제]들로부터 추론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세 가지를 파악해야 한다. 첫째 어떤 [종류의] 것들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위해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지, 둘째 그들 자신이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는지, 셋째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죄를 저지르고, 이들이 어떤 상태에 [5]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범죄가 무엇인지를 정의내린 다음에 순서에 따라 그것들을 말해 보자.

죄를 저지름은 법에 어긋나게 자발적으로[고의로] 해를 입힘이라고 하자. 법은 고유하기도 하고 공통적이기도 하다. 여기서 ‘고유한 것’은 쓰인 법[성문법, 실정법]을 말하는데, 이에 따라 사람들은 도시[국가]에서 삶을 영위하는 법이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쓰이지 않은 법[불문법, 자연법]들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서 승인된 것으로 보이는 법들이다. 사람들은 [10] 알고서 강요받지 않고 행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행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행한 것들을 모두 다 선택에 의해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에 의해 행한 것들은 모두 알고서 행한다. 왜냐하면 누구든 자신이 선택한 것을 모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법에 어긋나게 해를 입히고 나쁜 일들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악덕과 억제하지 못함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 가지 또는 [15] 여러 가지 결함들을 지니고 있다면, 결함들을 갖게 되는 바로 그 점에 관련하여 또한 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색한 사람은 돈에 관련하여, 무절제한 사람은 신체의 즐거움에 관련하여, 박약한 사람은 편의에 관련하여, 비겁한 사람은 위험에 관련하여 죄를 저지르고(그들은 공포 때문에 동료들을 위험에 내버려둔다), [20]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 명예 때문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화 때문에, 승리욕이 있는 사람은 승리 때문에, 적의에 찬 사람은 복수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옳음과 그름에 관한 착오 때문에, 파렴치한 사람은 평판을 경시함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각각도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결함]들 각각에 관련하여 그렇다.

[25]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는, 일부는 덕들에 관하여 말한 것들로부터, 일부는 감정들에 관하여 말할 것들부터 분명하다. 어떤 것을 위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지를 말하는 일이 남았다.

먼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욕구하고 어떤 종류의 것들을 기피하려 들면서 죄를 저지르는지를 분석해 보자. 분명히, 고소인은 모든 [30] 사람들이 이웃사람들에게 죄를 저지를 때 피하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동기들이,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것[동기들이 소송 상대방에게 들어있는지[타당하지] 살펴야 하고, 변론인은 그것들 중 어떤 종류의 것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타당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일부는 자신들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고, 일부는 자신들로 말미암아 행한다.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들 중 어떤 것들은 우연에 의해 행하고, 어떤 것들은 [35] 필연에 의해 행한다. 그리고 필연에 의한 것들 중 어떤 것들은 강요에 의해 행하고, 어떤 것들은 본성에 의해 행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어떤 것들은 우연히, 어떤 것들은 본성에 의해, 어떤 것들은 강요에 의해 행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자신들
1369a 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들이 | 그에 대한 원인인 것들은 모두 어떤 것들은 습관에 의해, 어떤 것들은 욕구에 의해 — 그것도 어떤 것들은 이성적[계산적] 욕구에 의해, 어떤 것들은 비이성적 욕구에 의해 — 행한다. 한편으로 의욕은 좋은 것에 대한 욕구이고(아무도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을 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이성적인 욕구들은 분노와 욕망이다. [5]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모두 7가지 원인에 의해 — 우연, 자연[본성], 강요, 습관, 계산, 걱정[특히 분노], 욕망에 의해 — 행한다.

연령이나 [주도적인] 마음상태나 [가난이나 부와 같은] 다른 요인들에 따라 추가로 구분하는 일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욕망에 빠지게 [10] 된다면,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젊음 때문에 행하지 않고, 분노와 욕망 때문에 행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부와 가난 때문에 행하지[욕망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욕망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과도한 부 때문에 불필요한 쾌락들을 욕망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도 부와 [15] 가난 때문이 아니라 욕망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행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직한 사람들과 부정직한 사람들도, 그리고 마음상태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해지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행동한다. 이를테면, 그들은 계산에 의해, 또는 감정에 의해 행동한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성격과 감정에 의해, 어떤 사람들은 이에 반대되는 것들에 의해 행동한다. 하지만 이리이러한 마음상태들에는 [20]

이러이러한 것[행동]들이 따르고, 저러저러한 마음상태들에는 저러저러한 것[행동]들이 따르게 된다. 이를테면 똑같이 즉각적으로, 절제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절제 때문에 즐거움들과 관련하여 좋은 판단들 및 욕망들이 따르고, 무절제한 사람에게는 같은 것[즐거움]들과 관련하여 반대되는 것들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들은 [여기에서] 제쳐두어야 하지만, [25] 어떤 종류의 것[행동]들이 어떤 종류의 것[성격]들에 따르기 십상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피부색이] 희든 검든, [키가] 크던 작던,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도 정해져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청년인지 노인인지, 또는 정직한지 부정직한지는 실제로 차이를 낳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수적인 사항들 중 사람들의 성격들을 차이 나게 만드는 것들은, 예를 들어,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 [30] 또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지는 차이를 낳는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나중에 얘기할 것이다. 지금은 나머지 문제들을 먼저 얘기해 보자.

우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들은 그 원인이 확정될 수 없는 것들이고, 어떤 것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고, 항상도 대체로도 정해진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다(이런 점들은 [35] 우연에 대한 정의로부터 분명하다). 자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들은 그 원인이 | 자신 안에 있고 정해진 방식으로 있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항상 또는 대체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자연에 거스른 것들로 말하자면, 그것들이 자연이나 다른 어떤 원인에 따라 일어나는지는 전혀 엄밀하게 논할 필요가 없다. 우연이 또한 그러한 것들의 원인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5] 강요에 의해 일어나는 것들은 행위자 자신의 욕망이나 계산에 거슬러 일어나는 것들이다. 습관에 의해 일어나는 것들은 사람들이 자주 행함으로써 산출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계산에 의해 사람들은, 이로움을 위해 행할 때마다, 언급된 좋은 것들 중 이롭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목적으로서 또는 목적에 이르기 위한 것[수단]으로서 행한다. [10] 무절제한 사람들도 몇 가지 이로운 일들을 행하지만, 그들은 이로움 때문이 아니라 즐거움 때문에 행한다. 걱정과 분노에 의해 복수 행위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복수와 처벌은 다르다. 처벌은 그것을 받는 사람을 위해 있지만, 복수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만족하도록 그를 위해 있기 때문이다. 분노가 무엇인지는 감정들에 관한 [15] 논의들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욕망에 의해 사람들은 즐거운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행한다. 익숙한 것과 습관적인 것이 즐거운 것들에 속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익숙해 있다면,

본성상 즐거운 것들이 아닐지라도 많은 것들을 즐겁게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컨대, 사람들이 자신들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이거나 외견상 좋은 것들, [20] 또는 즐거운 것들이거나 외견상 즐거운 것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들을 모두 자발적으로 행하고, 자신들로 말미암지 않은 것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아니므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모두 좋은 것들이거나 외견상 좋은 것들, 또는 즐거운 것들이거나 외견상 즐거운 것들이다. 그리고 나는 ‘나쁜 것들이나 외견상 나쁜 것들을 제거함’이나 ‘더 큰 나쁜 [또는 더 외견상 나쁜] 것을 [25] 덜 나쁜 [또는 덜 외견상 나쁜] 것으로의 대체함’을 좋은 것들로 꼽고(어떤 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괴로운 것들이나 외견상 괴로운 것들을 제거함’이나 ‘더 큰 괴로운 것들을 덜 괴로운 것들로 대체함’도 즐거운 것들로 꼽는다.

그러므로 이로운 것들과 즐거운 것들을,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것들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이로운 것에 관해서는 앞에서 [30] 조언연설들에서 말했고, 즐거운 것에 관해서는 이제 말해 보자. 각각의 것에 관하여 불명료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엄밀하지도 않다면, 규정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11장. 범죄의 목적 - 즐거움

우리[연설술 연구자]로서는 즐거움이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고, 일괄적이고도 감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음에] 자연적인 상태로 가라앉음이라고, [35] 괴로움은 이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전제해 두자. 그러한 것이 즐거움이라면, | 분명히 언급된
1370a 상태를 산출하는 것도 즐거운 것이고, 그 상태를 파괴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에 반대되는 상태를 산출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에 따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대체적으로 즐거울 수밖에 없다. 특히, 자연에 따라 [5] 생겨나는 것들이 제 본성을 얻었을 때에 그렇다.

그리고 습관들도 [즐거울 수밖에 없다]. 습관이 든 것은 이미 자연적인 것으로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실로, 습관은 자연[본성]과 비슷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주 일어나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것에 가깝고, 자연은 ‘항상’에 속하지만, 습관은 ‘자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요되지 않은 것도 [즐거울 수밖에 없다]. 강요는 자연에 거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0] 강제적인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것도 맞게 얘기되었다.

정말이지 강제적인 것은 죄다 고통스럽기 마련이라네.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긴장하는 것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도, [사람들이] 그것들에 습관이 들어 있지 않을 경우, 강제적이고 강요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는 습관은 그것들을 즐거운 것으로 만든다. 그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은 즐거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과 [15] 무위, 무관심과 놀이, 휴식과 수면은 즐거운 것에 속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강제적인 것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욕망이 [우리들 안에] 들어있는 것도 모두 즐겁다. 왜냐하면 욕망은 즐거운 것에 대한 욕구이기 때문이다. [욕망들 중 어떤 것들은 비이성적이고, 어떤 것들은 이성적이다. 여기에서, ‘비이성적인’ 욕망들은 [정신적] 이해를 바탕으로 욕망하지 않는 [20] 모든 욕망들을 말한다. 신체를 통해 [우리들] 곁에 있는 것들처럼 자연적으로 있다고 말해지는 것들이 모두 그러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음식물에 대한 갈증과 굶주림, 그리고 음식물의 각 종류에 대응하는 욕망의 각 종류, 그리고 맛, 색, 일반적으로 촉감에 관련된 욕망, 또한 후각[향기들], 청각, 시각에 관련된 욕망. [25] 그리고 ‘이성적인’ 욕망들은 확신을 바탕으로 욕망하는 것들을 말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은 것들에 대해 듣고서 [그것들이 즐겁다는 점을] 확신하고 난 뒤에, 그것들을 보기를 또는 획득하기를 욕망하기 때문이다.]

즐거워함은 어떤 감정을 감각하는[느끼는] 데에서 성립하고, 상상은 일종의 약한 감각이고, 기억하는 사람과 기대하는 사람 안에 이들이 기억하거나 [30] 기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상이 항상 따르기 마련이다. 만일 이렇다면 분명히, 또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즐거움들도 기억하는 사람들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즐거운 것들은 모두 현재의 것들로서 감각 속에 있거나 과거의 것들로서 기억 속에 있거나 미래의 것들로서 기대 안에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재의 것들은 감각하고, [35] 과거의 것들은 기억하고, 미래의 것들은 기대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기억들은, 그것들이 곁에 있는 시점에 즐거울 뿐만 아니라, 즐겁지 않은 것들조차도 어떤 것들은, 나중의 결과가 아름답고 좋을 경우, 즐겁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조된 다음에는 고생했던 일들에 대한 기억[회상]조차 즐겁다.

[5]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일들을 해냈던 남자에게는
고통들조차 나중에 기억할[회상할] 땐 즐거우니까.

이런 까닭에 나쁜 것을 갖지 않음도 즐겁다.

그리고 곁에 있을 때 큰 기쁨이나 이로움을 주는, 고통 없이 이로움을 주는, 기대 속에 있는 것들도 [즐겁다]. 일반적으로, 곁에 있어서 기쁨을 주는 것들이 [즐겁다]. 그리고 [10] 그것들을 기대하고 기억할 때에도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노함도 [복수를 기대할 때에] 즐겁다. 호메로스가 분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던 것처럼.

그것은 흘러내리는 꿀보다 훨씬 더 달콤하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명백히 복수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훨씬 능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거나 덜 분노하기 [15]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욕망들에는 일종의 즐거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었다는 점을 기억하거나 그것을 마주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즐거움에 기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열병에 걸려 목이 타는 사람들은 물을 마신 때를 기억하고 마시길 기대하면서 기뻐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애인에 대해 말하고 [20] 글을 쓰고 항상 무엇인가를 하면서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모든 일들에서 기억[회상]을 통해 애인을 감각하는[느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의 시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다. 그것은 애인이 곁에 있어서 기뻐할 때뿐만 아니라, 그가 떨어져 있어서 떨어져 있음으로 인한 고통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설 때에도 일어난다. [25] 슬프고 한탄할 때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즐거움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애인이 곁에 있지 않아 있지만, 즐거움은 기억하는 데에, 어떤 식으로든 그를 그가 행한 것을 그가 어땠는지를 보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도 시인은 잘 말했다.

이런 말로 그는 그들 모두에게 울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30] 그리고 복수도 즐겁다. 어떤 것을 얻지 못함이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을 얻음은 즐거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노한 사람들은 복수하지 못해 극도로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기대하며 기뻐한다.

그리고 승리도 승리욕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다. 왜냐하면 우월하다는 상상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월하고자 하는 욕망이 약하게든 강하게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35] 승리는 즐거우므로, 필연적으로
1371a [신체적] 경쟁과 | [정신적] 논쟁을 벌이는 놀이들도 즐겁다(이러한 것들에서도 승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뺨 던지기놀이, 공놀이, 주사위놀이, 장기놀이도 즐겁다. 그리고 보다 진지한 놀이들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어떤 것들은 익숙할 때 즐거워지고, [5]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 물이사냥과 모든 사냥은 처음부터 즐겁다. 경쟁이 있는 곳에 또한 승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다툼과 말다툼도 습관이 든 유능한 사람들에게는 즐겁다.

그리고 명예와 좋은 평판[호평]도 가장 즐거운 것들에 속한다. 자신이 뛰어난 인물과 같다는 상상이 각자에게 들기 때문이다. [10]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말할 때 더 그렇다. 멀리 있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떨어져 있는 사람들보다는 친한 사람들과 같은 나라사람들, 미래의 사람들보다는 현재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보다는 현명한 사람들, 소수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다. 언급된 이런 사람들이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보다 더 진실을 말하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짐승들[야만인들]처럼 [15] 사람들이 아주 경시하는 것들의 명예나 평판에는 — 적어도 평판 자체를 위해서는 —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도 즐거운 것에 속한다. [누군가를 친구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즐겁거나(술을 즐기지 않는다면 애주가가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친구로서] 사랑받는다는 것도 즐겁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자신에게 좋음 — 이것을 감각하는 [20] 사람은 모두 이것을 욕망한다 — 들어있다는 상상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받음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소중히 여겨짐을 뜻한다.

그리고 경탄 받음도 즐겁다. 그것은 존경 받음과 같기 때문이다. 아침 받음과 아침꾼도 즐겁다. 아침꾼은 외견상 감탄자이자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25] 하는 것도 즐겁다. 익숙한 것은 즐거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함도 즐겁다. 변함은 본성[자연상태]으로 향해 가기

때문이다. 늘 같은 것은 지나치게 고착된 습성을 초래하는 법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다.

모든 것들에서 변화는 감미롭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사람이든 사물이든 시간 간격을 둔 것들이 [30] 즐겁다. 왜냐하면 [그것들에는] 현재의 것으로부터의 변화가 있고, 이와 동시에 시간 간격을 둔 것은 드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움과 경탄함도 대체로 즐겁다. 왜냐하면 경탄함 안에 [배움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래서 경탄의 대상은 욕망의 대상이고, 배움에는 본성[자연상태]의 성취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과 [35] 은혜를 입음도 즐거운 것에 속한다. 왜냐하면
1371b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모두가 | 욕망하는 것들을 얻는다는 것을 뜻하고, 은혜를 베풀다는 것은 [그렇게 할 재원을] 갖고 [이 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능가함을 — 이 둘을 사람들은 지향한다 — 뜻하기 때문이다. 은혜를 베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즐거우므로, 사람들로서는 이웃들을 바로 세워주고, 이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도 즐겁다.

그리고 배움과 [5] 경탄함은 즐거우므로, 다음과 같은 것들도 즐거울 수밖에 없다. 즉, 그림, 조각, 시에서처럼 모방된 것, 그리고 모방된 것 자체는 즐겁지 않더라도 잘 모방된 모든 것. 왜냐하면 그것에 기뻐하지는 않고, ‘이것이 저거구나’라는 추론이 있어서 배움과 같은 [즐거운] 결과가 [10]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극에서 운명의] 급전(急轉)들과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남도 [즐겁다]. 이것들은 모두 경탄할만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성에 일치하는 것은 즐거우므로, 동류(同類)인 것들은 서로 본성적으로 일치하므로, 동류인 것들과 비슷한 것들은 모두 대체로 즐겁다. 예를 들어, 사람은 사람에게, 말은 말에게, [15] 젊은이는 젊은이에게 즐겁다. 다음과 같은 속담들도 그래서 나왔다. “또래는 서로를 반긴다”, “언제나처럼 비슷한 것을 ...”[유유상종], 그리고 “짐승이 짐승을 안다”, “까마귀는 까마귀 곁에” 등등.

그리고 비슷한 것과 동류인 것은 모두 서로에게 즐거우므로, 특히 각자는 각자 자신과 관련하여 그런 것을 겪으므로, 필연적으로 [20]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자신에 관련하여 특히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사랑하므로, 필연적으로

또한 자신의 것들이, 예를 들어 자신들의 작품[행위]들과 말들이 그들에게 즐겁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침꾼을 좋아하고, 애인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자식들을 좋아한다. 자식들은 [25] 자신들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것도 즐겁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작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배한다는 것은 아주 즐거운 것이므로, 지혜로운 자로 보이는 것도 즐겁다. 왜냐하면 현명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지혜는 많은 경탄할만한 것들에 대한 앎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대체로 명예를 사랑하므로, 필연적으로, 이웃사람들을 비판하고 [30] 이들을 지배하는 일도 즐겁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되는 곳에 시간을 쏟는 것도 [즐겁다]. 그래서 그 시인[작가]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루하루의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바로 자신이 최고인 곳,
바로 그곳으로 그는 서둘러간다.

[35] 마찬가지로, 놀이와 모든 이완은 즐거운 것에 속하고, 웃음도 즐거운 것에 속하므로, 필연적으로, 우스운 것들도 — 사람이든 | 말이든 행동이든 — 즐겁다.

1372a 우스운 것들에 관해서는 《창작술(시학)》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즐거운 것들에 관해서는 이만큼 말해둔 걸로 하자. 괴로운 것들은 그것들에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분명해질 것이다.